

청주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성당 봉헌식



청주성모병원은 8월 14일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님을 비롯한 청주 교구 사제, 직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성당

봉헌미사를 3층 신축성당에서 거행했다. 128평 규모의 신축성당은 성당, 원목실장실, 원목실, 제의방, 자원봉사자실, 교리실로 구조되어, 병원 성당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크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특별히 '아늑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날 행사는 봉헌미사, 축하식, 축하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당 건립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신축성당 봉헌은 병원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환자들의 영원이고 소망이었기에 더욱 뜻있고 의미가 깊다.

아름다운 선물을 남기고... (故 정선희 간호사)

8월 1일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가족 및 동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정선희 간호사가 가족 및 동료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곁을 떠났다. 최근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판정을 받게되자 故 정 간호사의 부모들은 "장기기증이야말로 간호사의 길을 천직이라 여기며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딸의 모습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이라며 고인의 장기를 기증하였다.

이에 강남성모병원 장기이식팀은 故 정 간호사의 간과 심장, 신장, 각막, 췌장 등의 적출수술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을 앓아 오던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되었다. 청주성모병원은 故 정간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기기증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본관 로비에 故 정간호사의 선행에 관한 현판식을 갖고 그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하였다.

홍대기 기자

성바오로병원

경희의료원과 호스피스 협력체계 구축

성바오로병원은 최근 경희의료원과 완화의료(호스피스)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두 병원은 앞으로 상호 환자의뢰와 호스피스 환자 진료 및 직원교육을 위한 인적 협력 및 기술적 지원,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 환자의 신속한 이동진료를 위해 상호 최대한 협력하고, 호스피스 관련 의로기술 자문 및 견학, 호스피스 학술, 집담회 공동개최, 일반 의료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완료

성바오로병원 장례식장이 각종 첨단 시스템을 갖춘 쾌적한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성바오로병원은 11월 27일 3개월간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김기순 병원장 등 80여 명의 교직원과 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복식을 가졌다.

새롭게 변모된 장례식장은 기존에 비해 분향소를 대폭 확장(60여 평형 3실, 50여 평형 2실, 40여 평형 1실 등 일반 분향소 6실과 10여 평형의 소규모 분향소 1실 등 총 7실)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분향소마다 접객실을 별도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주와 조문객 모두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특히 이중 10여 평형 분향소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병원설립이념에 따라 지역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주들을 위해 소액으로 모든 장례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것이다.

또 별도의 넓은 예식실을 마련해 조문객들이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장례미사 등 모든 전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향소와 접객실 전체 바닥에 전기온돌시스템을 적용했다.

또한 조문객들의 방문편의를 위해 넓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장 쪽 출입구를 새롭게 만드는 등 모든 면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스피스 환우 세례 · 혼배성사 받다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 중이던 최정현(요셉, 59세) 환우와 그의 부인 조정애(엘리사벳, 57세)씨가 32년 동안 사회혼으로 살다가 지난 8월 21일, 세례성사와 혼배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최요셉 환우는 지난 2002년 12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왔으며 간, 림프 전이로 올해 8월 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였고 곧이어 8월 21일 세례 · 혼배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최요셉 환우는 8월 24일 평화 속에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안산 천주교 묘(납골당)에 모셔졌다.

동부시립병원과 협력병원 체결

성바오로병원은 7월 29일 바오로관 회의실에서 동부시립병원(동대문구 용두동)과 협력병원 조인식을 체결하였다.

두 병원은 앞으로 상호 환자의뢰, 검사의뢰 및 희신, 진료지원 등 8개 부문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협력병원 체결은 지난 5월경부터 약 2개월간 추진되어 온 것으로, 동부시립병원의 부족한 검사나 치료 등에 대한 본원의 신속한 협조와 상호 환자이송 등 많은 부분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바로병원 연구팀, KIST 위탁연구과제 수임



성바로병원 소화기내과 최상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구팀(정규인 신경정신과 교수, 강 훈 피부과 교수, 전은정 소화기내과 교수)은 최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간기능생활지원 로봇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인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평가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위탁 받았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2013년 3월까지 진행되는 총 연구기간 중, 오는 2005년 3월까지 1차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김재형 교수, 대한고혈압학회 이사장 선임



성바로병원 순환기센터 소장인 김재형 교수가 최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대한고혈압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재형 교수는 오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고혈압학회를 이끌며, 우리나라의 고혈압 예방 및 관리, 치료에 주력할 계획이다. 권정훈 기자

성가톨릭병원

뒷산 발파허가 취소시위

성가톨릭병원 수녀님들과 병원 직원들이 뒷산 발파허가와 관련하여, 순천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릴레이 침묵시위에 나섰다. 순천시에서 S7기업에 부지조성 및 골재채취를 위해 발파허가를 내준 것은 지난 6월 29일. 이에 병원 측에서는 발파총력저지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 30일, 약 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시청 앞에서 침묵시위를 해오고 있는 중이다. 10년 전, 병원건물 신축 당시에도 S7기업의 발파로 인해 지하층에 균열이 가는 등 큰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발파허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현재, 병원 측은 발파허가 백지화와 일터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성가톨릭병원 지키기 생명·평화·문화의 밤" 행사 등을 개최하여 발파허가 취소 동참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종남 기자

성안드레아병원

알코올의존에서 회복으로 향하는 안내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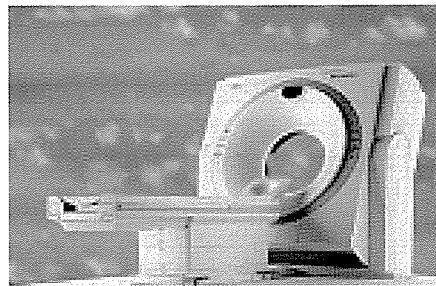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알코올 회복교실 치료팀 (ARC)에서는 알코올 환자들의 회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이 책은 150페이지 분량으로 알코올회복교실 프로그램시간표, 자서전, 알코올 강의, 인지행동치료, 명

상강의, 미술치료, MBTI 대인관계 훈련, 단주교본, 가족을 위한 교육 등의 주제로 엮여져 있다. 이와 함께 재발을 통해 얻는 교훈, 이럴 때 재발의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여덟 가지 방법, 단주를 위한 몇 가지 제안들, 단주를 위해 기억해야 할 열 가지 내용들, AA 주소록, 알코올중독 자가검사(MAST), 병의 인식에 대한 질문들(HAIS) 등이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진수 기자

성빈센트병원

다중단층촬영기 MD 16 Slice CT 도입, 가동



성빈센트병원 진단방사선과는 최근 다중단층촬영기(MD 16 Slice CT, Siemens SOMA-TOM Sensation 16 모델)를 도입, 지난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 기기는 일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에 비해 해상도가 10배 이상 뛰어나며 촬영시간이 10분의 1 정도로 단축되어 심장질환 특히 관상동맥질환, 대장·항문질환, 폐암 조기진단에 효과적이며, X-레이 피폭양도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제 병변의 위치나 크기 등을 입체영상과 함께 좀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단방사선과 차은숙 교수는 "16 슬라이스 CT 도입으로 보다 빠른 촬영속도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져, 한층 높은 차원의 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소아치과 개설, 진료 시작



성빈센트병원 치과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장애 아동의 전문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소아치과(김수연 교수)를 개설하고 10월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신관 2층 치과 내에 개설된 소아치과는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소아전용 의자와 진정요법을 위한 전문의료장비 및 각종 도구 등을 구비해 놓았다. 또한 천장과 벽면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캐릭터 포스터 등을 부착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해 놓았다.

무료복지지원인 안산 빈센트의원 개원

성빈센트병원을 주의로 사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 빈센트 드 불 자비의 수녀회가 지난 7월 10일, 무료 복지지원인 안산 빈센트의원을 개원했다. 진료대상은 영세민 극빈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로 노숙자, 행려자, 경제사범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사회복지시설 보호환자, 본당 사회복지분과 및

주임신부 추천환자, 등장 추천환자 등이다. 진료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오후 1시부터 9시까지)까지는 극빈 환자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1시부터 6시까지)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무료복지의원은 뜻을 같이 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후원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후원회사무실, 031-407-9784).

성빈센트 단신

- 화성시 무료양로원 루이제의 집 방문, 의료봉사활동 펼쳐 : 10월 23일
- 원목팀, 교직원 예비자 21명과 함께 라파엘의 집(경기도 여주 소재)으로 "하느님 일일 현장 체험"을 다녀와 : 8월 22일
- 사회사업팀, 병원 내 자원봉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 8월 26일
- 신경외과 손병철 교수, 중추성 신경통증질환과 파킨슨병의 신경자극 수술 업적을 인정받아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 2004~2005년 판에 등재
- 마케팅팀, 2004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교육 실시 : 9월 3일
- 원목팀, 교직원 대상 신앙강좌 개최 : 9월 1일
- 의료가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8월 16~20일
- 정신과 한진희 교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경기지부학회 회장 선출
- 재활의학과, 림프부종 건강강좌 성료 : 10월 22일
- 신경외과, 신경외과영역에서의 '내시경 수술' 컨퍼런스 개최 : 10월 20일
- 빈센트 성인 대축일(9월 27일) 행사 성료 : 세례식, 사진전시회,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1일 찾침, 성인 빈센트의 생애 비디오 상영, 올해의 빈센트인 선정, 사진 공모전 및 성서 퀴즈대회, 음악회 등 다양하게 펼쳐져

조성준 기자

메리놀병원

2004년 의료기관 평가, 과학적 업무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메리놀병원에서는 지난 10월 12~13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 평가'를 받았다. 의료기관 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로, 우선적으로 전국 500병상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부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10명의 심사위원단은 부서별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병동별

실질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평가팀은 인사관리체계와 인력충족성 및 진료관련 안내와 의료기관간 진료의뢰체계, 외래환자 예약제도의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준수 여부, 사회복지서비스, 입·퇴원 환자관리체계 등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서류심사와 실질심사를 병행하였다. 심사를 마친 후 심사관들은 "메리놀병원 전 직원들이 친절한 모습으로 환자 치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총평하였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청결과 위생 유지 및 거의 완벽할 정도의 간호 업무의 수행 등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호평하였으나 "입지 조건에 따른 환자분들의 불편 해소 방안과 젊은 연령층의 흡수 방안 등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논평하였다.

「성모의 밤」 행사 개최



메리놀병원에서는 10월 20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모의 밤'을 개최하였다. 성모의 밤 행사는 병원의 후보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

로사리오 성모님의 축일(10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박성태 원목 신부는 "로사리오 성모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병자들을 보듬고 감싸주던 성모님의 사랑을 기려, 고통을 안고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전 직원들이 봉헌한 금액은 전액 서구 아미도에 위치한 성모마을에 기증되었다.

핑크 리본 기간 맞이 건강강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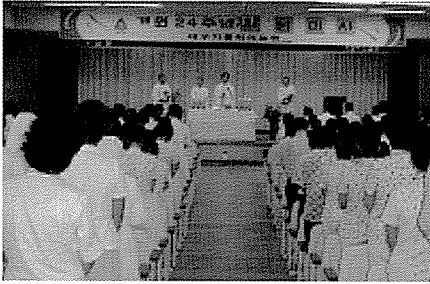
메리놀병원 외과에서는 10월 7일 '2004 핑크리본 대국민 건강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의 일환이며, 지역주민과 유방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 2부로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한 안과 학술대회에서 안과 이주은 과장 비디오 부문 우수상 수상

안과 이주은 과장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 안과 추계 학술대회에서 '트리암시놀론의 임상적 응용'이라는 주제로 비디오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트리암시놀론 아세트나이드는 안과 질환의 치료 및 수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스테로이드 약제 중 한가지로, 특히 당뇨 망막증이나 망막 혈관 폐쇄 질환 등으로 인한 망막 부종이나 황반 변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망막 수술을 할 경우에도 트리암시놀론을 수술의 보조 도구로 이용하면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서현 기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개원 24주년 기념미사 및 전체교직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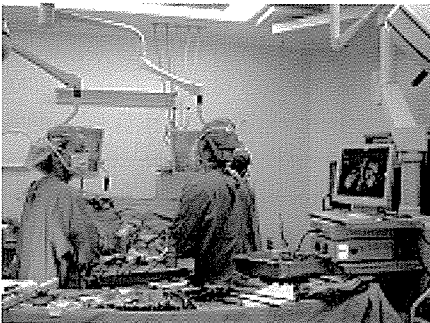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은 개원 24주년을 맞아, 신관 7층 대강당에서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4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미사 및 교직원 전체모임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병원의 이념인 사랑과 봉사 즉 '섬김과 봉사'라는 주제로 기획조정실장 신부님의 강론이 펼쳐졌다. 또한 의료원장 신부님은 24년 동안 대학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교직원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20년 근속자 10명에게 공로상 및 금메달을 수여하였으며, 10년 근속자 30명에게는 공로상 및 부상으로 금일봉을 지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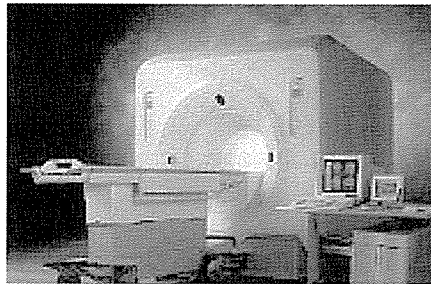
지역최초 복강경 전문 수술실 개소



대구가톨릭대학 병원은 대구지역 최초로 복강경 전문 수술실을 개소하였다. 복강경 수술은 최첨단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이 집적된 최신 수술방

법으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많은 분야에서 행해진다. 복강경 전문 수술실은 HD급의 고품질 camera와 LCD monitor를 구비하여 최상의 수술시야를 확보하였으며, 모든 장비를 천장에 부착하여 수술이 편리하고, 수술실 감염 예방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복강경 수술이 가능한 외과 영역은 위암을 비롯한 각종 위·소장질환, 담석증, 담관석을 비롯한 간담체질환, 대장암, 비장, 부신, 갑상선질환, 각종 소아외과질환, 충수돌기염 등이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는 복강경 전문 수술실 개소식(10월 23일)과 더불어 한-일 양국의 복강경 위 수술 전문가를 초청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복강경 위 수술의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복강경 전문 수술실은 외국의 우수한 병원들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이고, 국내에는 서울지역 3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으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의 개소로 지역 의료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전국 최신 버전 MRI Up Grade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는 전국 최신 버전으로 MRI를 Up Grade하였다. 최근 경제적인 측면을 이유로 들어, 몇몇의 MRI 업체에서 Main

구분		기존 MRI	변경 MRI
Computer	CPU	32MB	512MB
	HDD	2.1GB	18GB
	Memory	128MB	1GB
Cabinet	System Cabinet	4 Phased Array	8 Phased Array
	RF Cabinet	Analogue Control	Digital / SFFD
	Gradient Cabinet	23mT/m, 120T/m/s	33mT/m, 120T/m/s ACGP

Console 부분에 일반 PC(Personal Computer)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GE사의 Main Console은 가장 안정적인 Silicon Graphics와 PC 방법이 아닌 Workstation 방식을 채택하여 장비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원활한 환자처리가 가능하다. 정태영 기자

인곡자애병원

우울증교육 행사



인곡자애병원 정신과 병동에서는 지난 10월 13일, SEBoD우울증교육 행사 프로그램을 사랑의연수원 교육관에서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꽃동네복지시설 입소생활자, 봉사자, 직원, 수도자 등과 특히, 꽃동네시설 방문 견학 중이었던 광주 주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여 총 12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SEBoD Korea의 주최로, 우울증이라는 질환에 대한 비디오 상영, 우울증 지수 체크, 우울증 탈출방법 강의, 전문가 상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SEBoD Korea와 WHO 협력기관은 강의와 행사진행을 맡을 관계자들에게 사전교육과 강의 매뉴얼을 제공하여 신뢰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였다. 이 호 기자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정신과 이경욱 교수, 릴리 젊은 연구자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정신과 이경욱 교수가 지난 9월 3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개최된 2004년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릴리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릴리 젊은 연구자상은 의학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정신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학술시상제도로, 올해로 2회를 맞이했고 수상자는 정신약물학적 연구업적과 학회의 학술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2차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정신약물학 연구를 비롯하여 우울증 환자의 임상증상, 항우울제 부작용 특성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임상연구를 수행한 업적을 인정 받아 이번에 릴리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하게 된 이경욱 교수는, 세계 최초로 한국인 얼굴 표정 영상의 표준화 연구에 주축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정서신경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젊은 연구자이다.

경기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개원

- 권역응급센터, 응급환자 전문치료 및 각종 대형사고·재난 구호에 중심 역할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7월 3일 오전 11시 병원 본관 앞 광장에서 경기북부권역 응급의료센터·건강증진센터 개원

식 및 봉헌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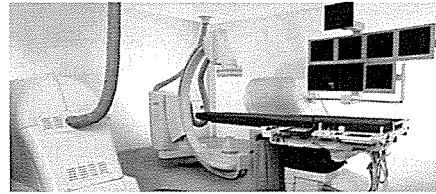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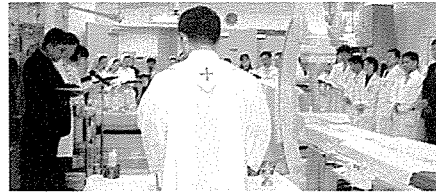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이사장 이한택 주교를 비롯한 내외귀빈 및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새 센터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함과 동시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지난 6월 착공하여 개원된 의정부성모병원 신관(권역응급의료센터)은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681평 규모로 응급실, 응급병동 등 180 병상과 건강증진센터, 장례예식장 등을 갖추어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와 함께 대형 재해 발생시 의료지원 중심병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심혈관센터 개소

- Digital Flat Panel Detector를 장착한 심혈관 촬영기(AXIOM Artis Dfc) 도입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에서는 최근 심혈관 촬영기(AXIOM Artis



Dfc)를 도입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새로이 도입된 심혈관 촬영기는 심장이나 혈관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여부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로, 본 센터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관동맥조영술

로 관상동맥의 폐색, 협착 정도 및 측부 순환을 평가하고 관동맥 협착 부위에 경피적 중재시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 부정맥의 진단과 전극도자 절제술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 심혈관센터는 지난 8월 9일 개소한 이후 처음 약 4주 동안 70례의 심혈관 조형술을 시술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신식의 심혈관 기기를 사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술하여 치료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건강증진센터 고객 만족도 높아

새롭게 개원한 의정부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가 최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지난 1/4분기에 비해 10점이 오른 87점의 만족지수를 나타내고, 2/4분기 서비스아카데미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센터는 보통 1시간 30분(남)에서 3시간(여) 사이에 모든 검사가 끝나며, 건강검진 판정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곧바로 해당과의 접수가 이루어져 별도의 예약과 기다림 없이 진료를 받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장을 곧바로 발급하여 원무팀에서는 방 배정만 받고 입원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은 환자의 기다림을 덜어주고,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준다.

권소라 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 기능성 세포치료센터 개소식 및 헌판식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의료원장 : 최영식 신부)은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부 선정,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세포치료제 개발 추진 기관인 가톨릭 기능성 세포치료센터(소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오일환 교수)의 개소식 및 헌판식을 가졌다. 가톨릭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학내 보직자를 비롯하여 로마교황청 대사 대행 몬시뇰 큐리언,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이경호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께하라 일본 성체세포치료 책임자 등 국내외 인사와 연구진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로마교황청 대사 대행 몬시뇰 큐리언은 격려사를 통해 "가톨릭중



앙의료원 연구자에게 깊은 축복을 하며 동시에 이토록 유용하고 촉망되는 연구를 지원한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포치료제 개발에는 가톨릭대 의대의 혈역(오일환, 김태규, 조빈, 민창기 교수), 심장혈관(백상홍 교수), 신경(전신수, 김영인 교수), 골대사(강무일 교수, 자기면역질환(조철수 교수), 당뇨병(윤건호 교수), 간질환 분야(배시현 교수) 및 조혈모세포은행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학분야의 교수들이 대거 참가하며, 이밖에 서울대(왕규창, 이동수 교수)와 KAIST(고규영 교수), 아주대(서해영, 민병현 교수)가 참가한다.

이와 함께, 가능성 세포치료제 개발센터의 연구개발을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LG 생명과학, 셀론텍 및 메디포스트 등 국내 생명공학 회사들이 대거 참가하며 한국 세포치료의 첨단발전을 이끌어 갈 80명의 연구진이 본 센터에서 연구개발에 매진한다. 신경아 기자

강남성모병원

허리디스크 치료에 내시경 이용 축방(옆구리) 접근술 효과적 - 25례 시술, 92% 성공률, 환자의 나이, 디스크 돌출 형태에 관계없이 시술가능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내시경을 이용한 축방(옆구리) 접근술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신경외과 박춘근, 김동현 교수팀은 25명의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새로 도입된 축방(옆구리) 경유 내시경하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하여 약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92%의 수술 치료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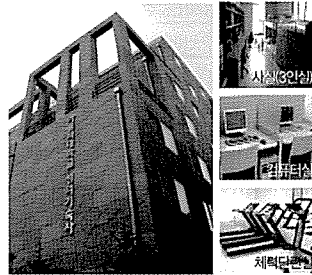
특히, 이 시술법을 통하여 수술 전의 극심한 허리통증은 물론 다리로 뻗치는 통증(방사통)이 확연히 개선되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기존의 후측방(허리 뒷부분) 접근술은 5mm의 비늘구멍 정도의 피부절개를 통하여 디스크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고, 시술 후 1~2일 이내에 퇴원하고 조기에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졌으나, 반면에

40세 이하의 젊은 환자에게서만 좋은 시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고연령 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우며, 디스크가 후측방으로 돌출된 경우에만 시술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임상결과는 지난 10월 2일 한양대병원에서 개최된 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소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경아 기자

가톨릭대학교

성의(聖賢)기숙사 축복식 가져



가톨릭대학교에서는 지난 9월 9일, 법인이사장 이한택 주교의 집전으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의교정 학생기숙사 건립에 대한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성의기숙사는 지난 2004년 6월 30일에 준공허가를 받고, 성의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80여 명의 학생들이 8월 27일부터 입주하여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총 129명(학생 124명, 게스트 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기숙사는 총 8층 건물로 지하 1층에는 편의시설인 학습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기도실, 휴게실, 세탁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사감실, 안내실, 주차장이, 2~6층에는 40개의 사실이, 7층에는 4개의 게스트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의기숙사 완공으로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성의기숙사 완공으로 재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04년 기초의학교실 교수 워크숍 성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지난 10월 22~23일, 1박 2일간 안면도 오션캐슬리조트에서 의료원장 최영식 신부, 경영관리실장 이기현 신부 등 의료원 보직자와 의과대학장 천명훈 교수 등 성의교정 보직자를 비롯해 기초의학교실 교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기현 신부 등 의료원 보직자와 의과대학장 천명훈 교수 등 성의교정 보직자를 비롯해 기초의학교실 교수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가수 보아, 가톨릭대학교 15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

성신교정에서는 지난 10월 30일 가수 보아(세레명 : 끼아라)를 가톨릭대학교 개교 150주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보아의 홍보대사 위촉은 "내년에 가톨릭대가 개교 15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톨릭교회의 교육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가톨릭대 측의 요청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보아가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보이는 가톨릭대 초대 이사장인 김수환 추기경과 환담을 가진 후 오창선 총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고,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기념 핸드 프린팅 행사를 가졌다.

보이는 가톨릭대 개교 150주년이 되는 2005년에 가톨릭대 150주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는 1855년 프랑스의 메스트르(Maistre) 신부에 의해 충북 제천 배론에 세워진 성요셉신학당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54년 의학부를 증설했으며, 1995년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하여 성신교정(신학과/혜화동 소재), 성의교정(의과대, 간호대/반포 소재), 성심교정(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이공, 예능계열/부천 역곡 소재) 등 현재와 같은 멀티 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산학협력단 현판식 가저



판식을 가졌다.

산학협력단은 앞으로 본교의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본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지적재산권·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 본교 산학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3년 공포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재미 동창회 방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과 동문들과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재미 동창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최영식 의료원장 신부, 남궁성은 의무부총장, 방병기 새병원건립추진 본부장, 성경경 새병원건립추진

보아의 홍보대사 위촉은 "내년에 가톨릭대가 개교 150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톨릭교회의 교육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가톨릭대 측의 요청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보아가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되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보이는 가톨릭대 초대 이사장인 김수환 추기경과 환담을 가진 후 오창선 총장으로부터 위촉패를 수여받고, 위촉식이 끝난 후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기념 핸드 프린팅 행사를 가졌다.

보이는 가톨릭대 개교 150주년이 되는 2005년에 가톨릭대 150주년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는 1855년 프랑스의 메스트르(Maistre) 신부에 의해 충북 제천 배론에 세워진 성요셉신학당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54년 의학부를 증설했으며, 1995년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하여 성신교정(신학과/혜화동 소재), 성의교정(의과대, 간호대/반포 소재), 성심교정(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이공, 예능계열/부천 역곡 소재) 등 현재와 같은 멀티 캠퍼스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상호 교수)이 지난 9월 10일, 성의교정에서 법인 관계자 및 교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동창회를 기관차원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행사였으며, 일정 도중에 UCLA Medical Center와 University of Michigan Hospital Center를 벤치마킹하였다.

칠레 가톨릭대학교 총장 예방



대학교를 예방하여 오창선 총장 신부와 양교 학술교류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1888년에 설립된 칠레 가톨릭대는 학생수가 19,776명이며 칠레 제1의 사립대학교이다. 정부 및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배출해왔으며, 지난 해부터 아시아지역 연구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번 예방으로 두 교의 학술 및 학생교류 협약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양교의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가재진 기자

포항성모병원

무료진료봉사 실시



포항성모병원(병원장 이종네)에서는 병원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경주시 안강읍에서 내과, 소아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치과 전문의 등 총 50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여 무료진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무료진료는 당일 약제처방 및 물리치료까지 실시하였으며, 농번기 바쁜 일상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지역주민 200여 명이 진료혜택을 받았다.

김판섭 기자